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 (SC-BSI)

이은형 (연구위원, eunhyung@ricon.re.kr, 02-3284-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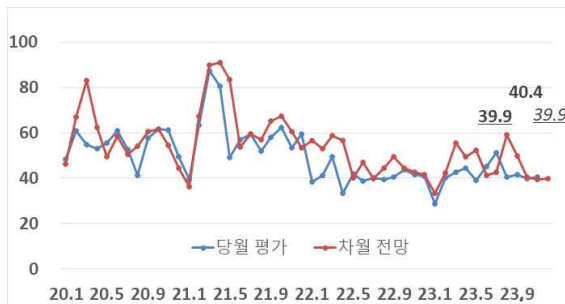
I. 2023년 11월 건설경기평가 및 12월 전망

■ 11월의 경기평가는 전월 수준, 12월 변동폭도 미미할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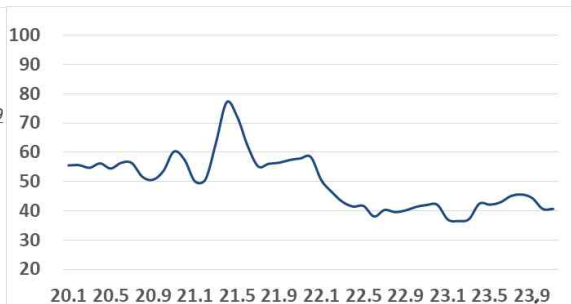
- 11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40.4로 전월(39.9)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0.5p), 다음 12월(39.9)에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경영애로사항으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안, 기능인력의 수급, 상호시장진출에 따른 업역충돌, 수익성 악화 등이 지적됨.
- 세부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6.1(40.4→26.1)로 크게 악화되었지만(-14.3p), 지방은 45.1(39.7→45.1)로 개선(+5.4p)되면서 전체 지수에 영향을 미쳤음

〈표-1〉 2023년 11월 건설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2023년 12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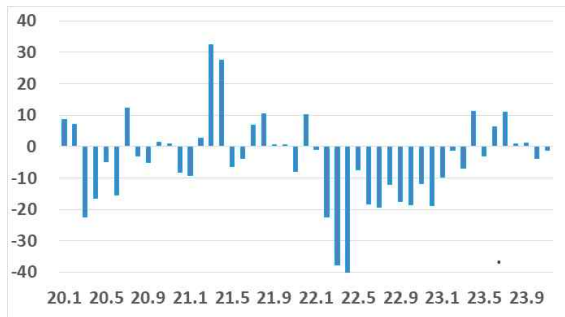
구 분	종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2023년 11월 평가	40.4	41.5	26.1	45.1	18.8	43.5
2023년 12월 전망	39.9	41.5	41.3	39.4	37.5	38.7



〈당월 평가 및 차월 전망 추이〉



〈당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당월 평가)〉



〈차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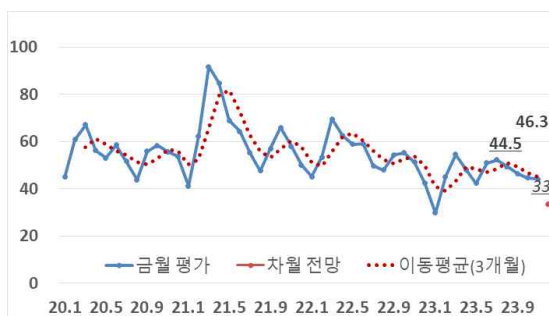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은 전월 수준, 하도급은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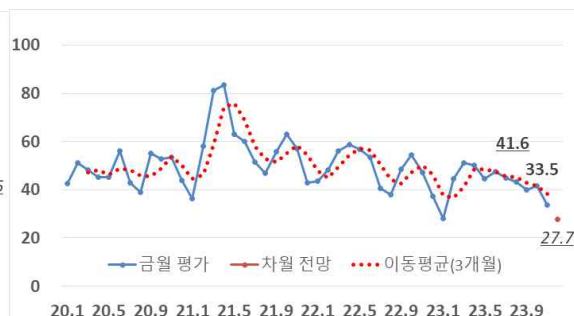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수주가 44.1(44.5→44.1)로 전월 수준이 유지되었지만(-0.4p) 이는 전년 동월(51.1)보다 크게 낮은 것임. 하도급수주는 38.8(41.6→38.8)으로 전월과 소폭 차이를 보였으며(-2.8p) 여전히 전년 동월(47.2)보다 낮은 수준임.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46.8→39.1)이 하락한 반면(-7.7p), 지방(43.7→45.8)은 전월의 수준을 유지함(+2.1p).
-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도 수도권(44.7→41.3)에서 소폭 하락했으며(-3.4p), 지방(40.5→38.0)도 유사한 추세를 보였음(-2.5p).

〈표-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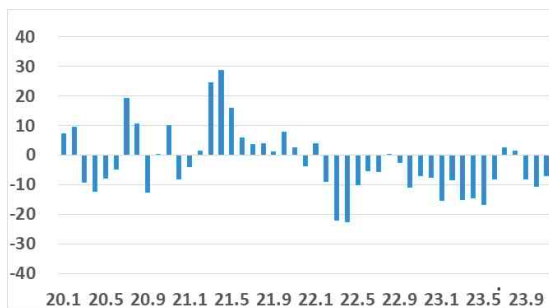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원도급 수주	2023년 11월 평가	44.1	51.1	39.1	45.8	28.1	53.2
	2023년 12월 전망	33.5	36.4	34.8	33.1	18.8	45.2
하도급 수주	2023년 11월 평가	38.8	47.2	41.3	38.0	34.4	48.4
	2023년 12월 전망	27.7	33.5	28.3	27.5	12.5	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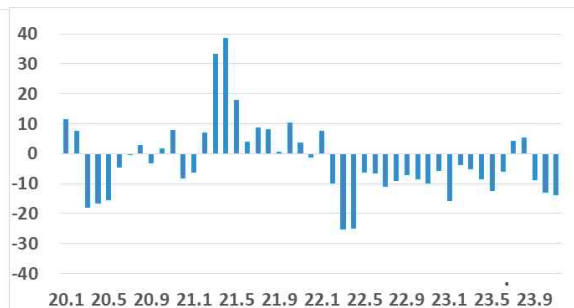
〈원도급 수주〉



〈하도급 수주〉



〈원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하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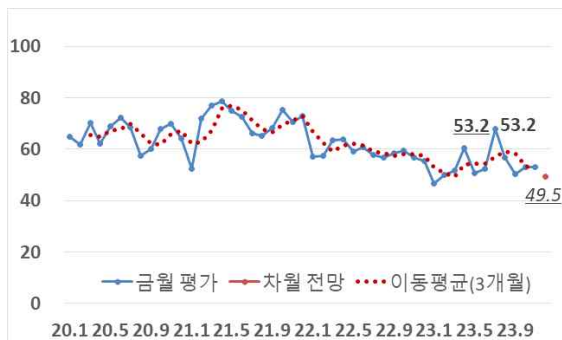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와 자금조달지수 모두 전월 수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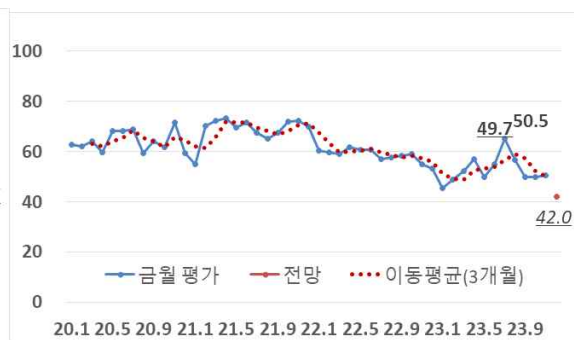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53.2(53.2→53.2)로 전월과 동일했지만(0.0p), 다음 12월(49.5)에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3.7p)
 - 수도권(48.9→39.1)은 크게 하락했으며(-9.8p), 지방(54.8→57.7)은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됨(+2.9p).
-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50.5(49.7→50.5)로 전월 수준을 지속했으며(+0.8p), 12월(42.0)에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수도권(44.7→43.5)은 전월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1.2p), 지방(51.6→52.8)도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됨(+1.2p).

〈표-3〉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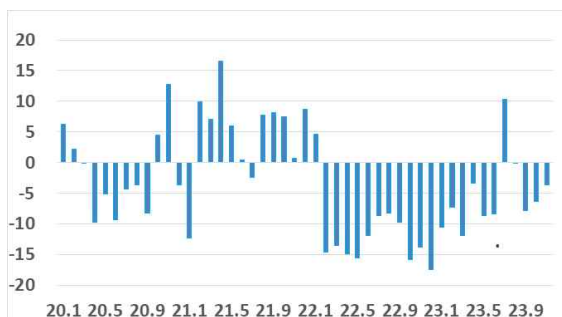
구 분		종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공사대금수금	2023년 11월 평가	53.2	56.8	39.1	57.7	28.1	64.5
	2023년 12월 전망	49.5	52.8	52.2	48.6	50.0	51.6
자금조달	2023년 11월 평가	50.5	55.1	43.5	52.8	34.4	66.1
	2023년 12월 전망	42.0	51.7	41.3	42.3	37.5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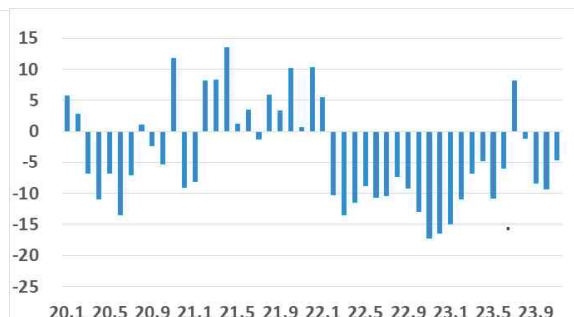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공사대금수금 증감(전년 동월비)〉



〈자금조달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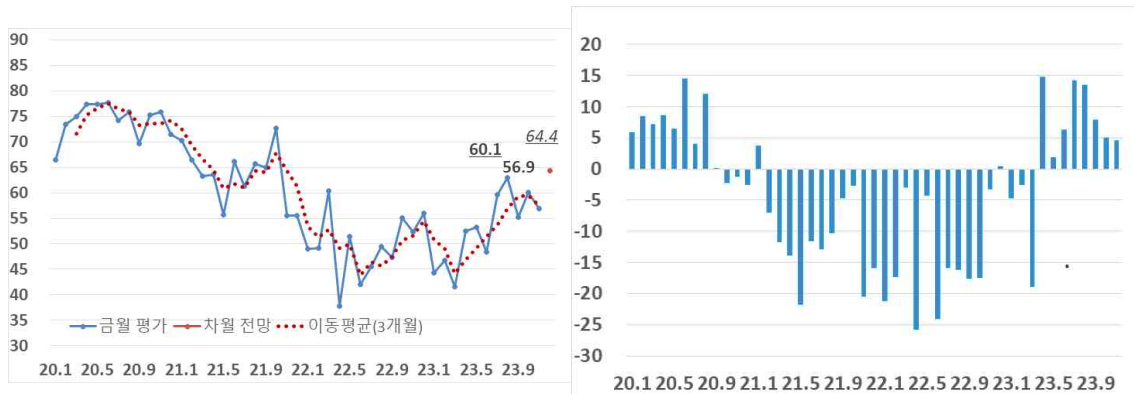
3 건설기능인력 관련 지수 (인건비, 인력수급)

■ 인건비체감은 소폭 개선, 기능인력수급은 소폭 악화

- 인건비체감¹⁾ 경기실사지수는 56.9(60.1→56.9)으로 전월에 이어 소폭 개선되었으며(+3.2p), 전년 동월(52.3)보다도 높은 수준임. 이번 조사에서도 기능인력의 인건비 문제가 기업경영의 문제점으로서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더불어 지적됨.
 - 수도권(68.1→58.7)은 전월보다 크게 악화되었으며(-9.4p), 지방(57.1→56.3)은 전월의 수준이 지속됨(-0.8p).
- 기능인력수급 경기실사지수²⁾는 68.6(59.0→68.6)으로 전월과 달리 크게 개선되었으며(+9.6p). 이는 전년 동월(59.7)보다 높은 수준임. 기능·기술인력의 수급문제는 자재비 상승과 함께 지적되고 있음.
 - 수도권(53.2→58.7)은 전월의 하락세를 일부 회복했으며(+5.5p), 지방(61.1→71.8)은 전월 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됨(+10.7p).

〈표-4〉 인건비 및 기능인력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인건비 체감	2023년 11월 평가	56.9	52.3	58.7	56.3	56.3	62.9
	2023년 12월 전망	64.4	57.4	69.6	62.7	62.5	71.0
인력수급	2023년 11월 평가	68.6	59.7	58.7	71.8	59.4	77.4
	2023년 12월 전망	68.6	67.0	54.3	73.2	53.1	79.0



〈인건비 체감 (개선·악화정도)〉

〈인건비 증감(전년 동월비)〉

1) 기능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의 체감도(개선 또는 악화)를 의미함

2)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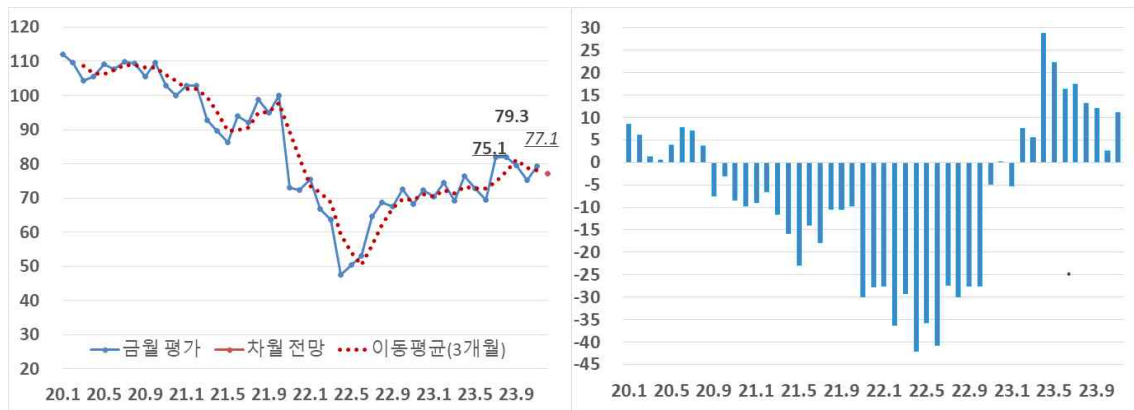
4 건설자재 관련 지수 (자재비, 자재수급³⁾)

■ 자재비지수는 전월 수준, 자재수급지수는 소폭 개선

- 자재비⁴⁾ 경기실사지수⁵⁾⁶⁾는 50.5(50.9→50.5)로 전월과 유사했으며(-0.4p), 차월(54.8)에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건설공사의 비수기인 동절기에는 실내 등 마감공사가 주로 진행되기에 자재별로 체감되는 상황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수도권(61.7→52.2)은 전월 대비 크게 하락(-9.5p), 지방(46.8→50.0)에서는 전월에 이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3.2p).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⁷⁾는 79.3(75.1→79.3)으로 소폭 상승했지만(+4.2p) 차월(77.1)에는 일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2.6p).
 - 수도권(68.1→71.7)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3.6p), 지방(77.8→81.7)도 수도권과 유사한 폭으로 개선됨(+3.9p).

〈표-5〉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자재비 체감	2023년 11월 평가	50.5	40.3	52.2	50.0	43.8	61.3
	2023년 12월 전망	54.8	44.3	63.0	52.1	59.4	67.7
자재수급	2023년 11월 평가	79.3	68.2	71.7	81.7	62.5	93.5
	2023년 12월 전망	77.1	71.6	67.4	80.3	56.3	91.9



〈자재수급〉

〈자재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 3)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게 나타남.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나 종합 건설업체로부터 자재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고, 실무적으로도 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드물기 때문임
- 4) 기업들이 구매하는 자재비의 체감수준(개선 또는 악화)을 의미함
- 5)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 6) 전년인 2022년 상반기는 특히 세계적 공급망 이슈 및 건설자재의 수요난이 극도로 부각된 시기였기에 금년의 조사치와 직접 비교가 쉽지 않음을 감안해야 함
- 7) 코로나 이전 시기의 지수는 대략 100정도 수준이었음을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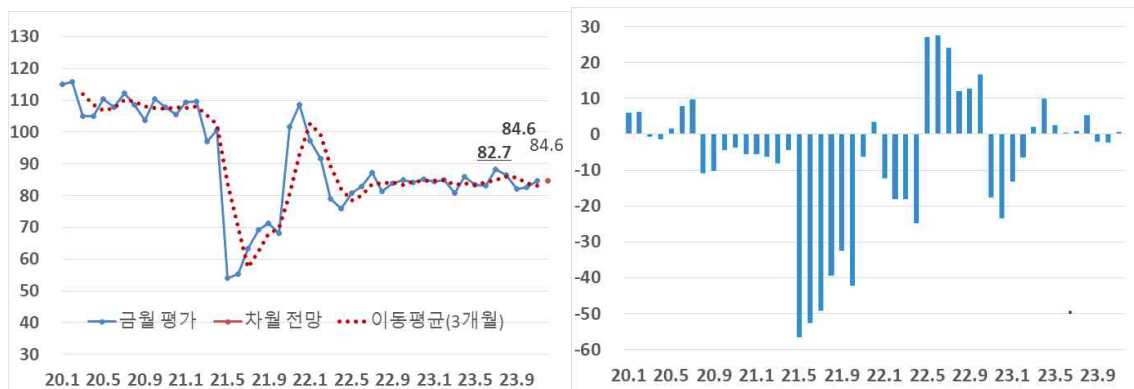
5 건설장비 수급지수 (장비임대료, 장비수급)

장비임대료지수와 장비수급지수는 전월과 유사

- 장비임대료 경기실사지수는 64.4(66.5→64.4)로 전월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2.1p), 차월(67.6)에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3.2p). 이는 전년 동월(62.5)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전년의 상황을 감안하면 유의미하게 평가하기는 불충분함.
 - 수도권(70.2→65.2)은 전월까지의 개선세가 꺾이며 소폭의 하락을 보였으며(-5p), 지방(65.1→64.1)은 전월과 유사한 것으로 집계됨(-1p).
- 건설장비수급 경기실사지수는 84.6(82.7→84.6)으로 전월과 큰 차이는 없었으며(+1.9p), 차월의 하락전망도 그리 큰 것은 아님(-2.4p). 일반적으로 장비수급의 문제는 전반적이거나 국지적인 호황으로 초래되기에 당분간 별다른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수도권(85.1→87.0)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1.9p), 지방(81.7→83.8)도 전월 대비 변동폭이 크지 않았음(+2.1p).

〈표-5〉 건설장비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장비 임대료 체감	2023년 11월 평가	64.4	62.5	65.2	64.1	59.4	75.8
	2023년 12월 전망	67.6	64.8	76.1	64.8	71.9	77.4
장비수급	2023년 11월 평가	84.6	84.1	87.0	83.8	84.4	96.8
	2023년 12월 전망	84.6	83.5	82.6	85.2	78.1	101.6



〈건설장비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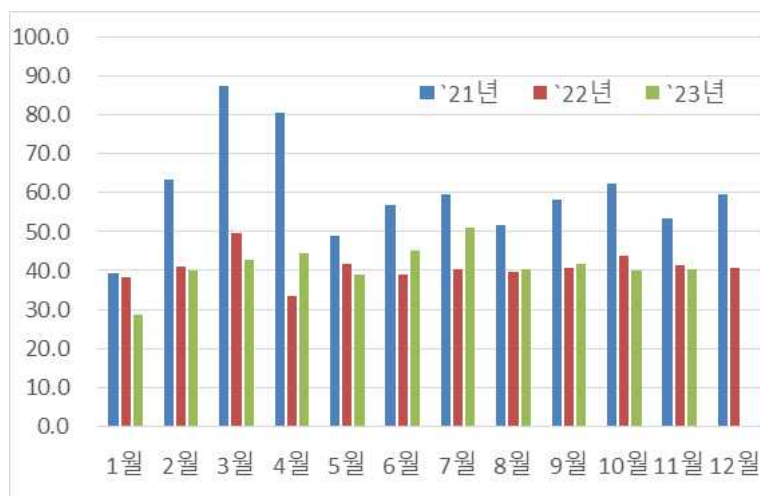
〈건설장비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참고: 2023년 11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 분		종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40.4	41.5	26.1	45.1	18.8	43.5
	차월 전망	39.9	41.5	41.3	39.4	37.5	38.7
공사물량	원도급 수주	금월 평가	51.1	39.1	45.8	28.1	53.2
		차월 전망	36.4	34.8	33.1	18.8	45.2
	하도급 수주	금월 평가	47.2	41.3	38.0	34.4	48.4
		차월 전망	33.5	28.3	27.5	12.5	38.7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금	금월 평가	56.8	39.1	57.7	28.1	64.5
		차월 전망	52.8	52.2	48.6	50.0	51.6
	자금조달	금월 평가	55.1	43.5	52.8	34.4	66.1
		차월 전망	51.7	41.3	42.3	37.5	50.0
건설 기능인력	인건비 체감	금월 평가	52.3	58.7	56.3	56.3	62.9
		차월 전망	57.4	69.6	62.7	62.5	71.0
	인력수급	금월 평가	59.7	58.7	71.8	59.4	77.4
		차월 전망	67.0	54.3	73.2	53.1	79.0
건설자재	자재비 체감	금월 평가	40.3	52.2	50.0	43.8	61.3
		차월 전망	44.3	63.0	52.1	59.4	67.7
	자재수급	금월 평가	68.2	71.7	81.7	62.5	93.5
		차월 전망	71.6	67.4	80.3	56.3	91.9
건설장비	장비임대료 체감	금월 평가	62.5	65.2	64.1	59.4	75.8
		차월 전망	64.8	76.1	64.8	71.9	77.4
	장비수급	금월 평가	84.1	87.0	83.8	84.4	96.8
		차월 전망	83.5	82.6	85.2	78.1	101.6

주1: '전체'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합산해서 산출.

주2: '광역시'는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최근 3년간의 SC-BSI 비교〉